

예배 / 오이코스 / 훈련 통계

MD & VA Campus 전체

주일 예배	
한어 장년	680
영어 장년	287
중고등부	122
초등부	208
유아/유치부	182
오아시스(장애부)	12
합계	1,491

특별 새벽 부흥회	
3월 26일(월)	252
27일(화)	249
28일(수)	244
29일(목)	265
30일(금)	248
31일(토)	362
합계	1,620

오이코스	
한어	191
영어	28
중고등부 불방학	94
특별 활동	
합계	313

예배 총 합계: 3,424

MD Campus

한어 훈련	
한우리반	4
성장반	24
제자반	29
알파 게스트	21
알파 섬김이	43
합계	121

영어 훈련	
New Connection	18
Impact	23
Y.A Praise/Prayers	34
Master Life I&II&III	중
Crown Ministry	
Experiencing God	강
합계	75

기도회 및 모임	
프레이어 파트너 1&2	24
중보기도	5
어린이 중보기도	10
Staff 기도회 KC	8
Staff 기도회 EC	10
Staff 오이코스	25
여성 야엘	0
합계	82

MD 훈련 총 합계: 278

VA Campus

한어 훈련	
한우리	11
제자반	4
새가족반	4
성장반	7
사역자반	9
합계	35

영어 훈련	
고등부 제자훈련 I	4
고등부 제자훈련 II	8
알파 VIP/도우미	7/6
합계	25

기도회 및 모임	
프레이어 파트너	6
목요 기도회	0
다락방 기도회	25
합계	31

VA 훈련 총 합계: 91

유아, 유치부 (Discoveryland)

◆ 2011 Church Alive! (수요 저녁 어린이 바이블 클럽) 4월 18일(수) 오후 7:00

초등부 (Promiseland)

◆ 그랑프리 경주 경주: 5/6(일), 2:00pm / 첫 제작: 4월 11일, 7:30(부모님과 함께)
플레이스테이션 / 대상: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과 부모님

중 · 고등부 (Timothy)

◆ 4월 일정 13일, 27일(금) 오이코스: 오후 7시 / 20일(금) 금요모임: 오후 7시
15일(일)~5월 5일(토): 순결 서약식 교육

◆ Basketball Open Gym 5월 13일(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2:30

대학부 (Impact)

◆ 여름 수양회 5월 28일(월)~6월 2일(토), Rehobeth Beach/오늘까지 \$180(이후 \$200)

Church Alive!(수요 기도회) 4월 18일(수)부터 시작합니다.
Underground Church(금요 지하교회) 4월 20일(금)부터 시작합니다.

프레이어 파트너	1부 예배 오전 7:30	2부 예배 오전 9:15	커버넌트 채플
주일 봉사자	점심 담당 오늘: 부활주일 오찬(교회 제공)	4/15:	
	커피/청소 오늘: 송희정(1316), 송희진(1317)	4/15: 안지영(1318), 김중수(1321)	
오이코스와 함께하는 노방전도	일시: 4월 15일, 오후 12:30, 212호		
	초대: 김정분(1141), 장대창(1142)		

헬로쉽 교회 / 메릴랜드 캠퍼스

2012. 4. 8

“부활의 아침이 가져온 용서”

(요한복음 21:12-17)

설교: 김원기 목사

He is RISEN

MD 캠퍼스
18901 Waring Station Rd.
Germantown, MD 20874
Tel. 301-444-3100 Fax. 301-444-3115

VA 캠퍼스
1439 Shepard Dr.
Sterling, VA 20164
Tel. 703-444-5634 Fax. 703-444-0567

www.fellowshipusa.com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분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 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소식 가운데 몇 개를 소개합니다.
같이 읽으시고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다윗 선교사님의 편지

목사님! 이다윗 선교사입니다.

저는 지금 중국 서남쪽 끝 중국과 라오스 국경지대의 사역지를 돌아보고자 지금 공항에 나와 탑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사님 생각이 나며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이 납니다. 정확히 왜 눈물이 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보고 싶고 생각이 납니다.

건강하십니까? 교회 소식은 아내로부터 가끔 듣고 있습니다. 목사님! 힘드시지요? 기도는 매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지? 지난주에는 상해에서 가깝게 교제하던 상해 푸둥 연합교회 최목사가 수요일에 인도 후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뇌종양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제 40대 후반인데 말입니다.

목사님, 건강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여행 다니면서 목사님 레디칼 시리즈를 MP3로 들으며 많은 도전과 새로운 깨달음을 받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모르게 식어버린 복음의 열정, 영혼들에 대한 마음, 습관화되어버린 제 사역 등을 돌아보며 말씀을 듣고 회개도 하고, 한편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저 자신을 활활 태우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도전을 주신 분입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아마 제가 처음으로 목사님께 드리는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자주 눈물이 납니다. 이제 눈물 나는 이유가 조금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냥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목사님 힘내시고 건강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공항에서 그냥 두서없이 썼습니다. 용서를 바랍니다.

목사님과 늘 마음으로 함께 하는 이다윗 선교사 올림.

오아브라함 선교사님의 편지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 목사님!

집사람을 간호하기 위하여 병실에 있으면서 우리 교회와 목사님 생각이 납니다. G 아버지께 대한 목마름과 사모함이 가득한 목사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한 소자라도 행여 실족할까 항상 긴장의 모습이 곁들여져 있는 목사님의 모습…

선교사 생활 23년에 걸친 보이는 현상은 많은 생명의 살아남과 더불어 부부가 암이라는 절고의 걸린 모습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서…

자연적으로 인정하며 감사할 뿐인 것은 연약한 육신이 그렇게도 목사를 당했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스스로 위로해 본답니다. 주님이 아시기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잠 31:25, 뱀전 2:24, 롬 4:21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셔서 감사함으로 지냅니다.

본인의 지하 성도님들이 남한을 걱정하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선교사가 본국을 걱정하며 도와야 하는 거꾸로 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 목사님이 내 마음에 점점 더 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사님! 힘내세요!!!

저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울게 하시는 분은 목사님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목사님의 그 수고의 열매로 이미 마지막 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여야 할 중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지도자 양성이 금년부터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한 주님의 사역은 버지니아, 메릴랜드를 넘어 이미 온 열방으로 번져졌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후일을 웃으며”

씨애틀에서 온 편지

특별 헌금과 함께 보내왔습니다.

목사님~

조금 가까운 곳에 살았었다면 아마 특새 기간 동안 그곳에 놀러 살았을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이 기다려지며 몇일 남지 않은게 아쉬워집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NCFC 교회 웹사이트를 적어주며 그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며 이곳 North West지역에 진정한 부흥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혹시 그런 부흥이 오게 되면 목사님 때 문이시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려구요… ^^)

사순절을 너무나 의미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부활절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승희 드림

안녕하세요, 목사님.

목사님의 과격한 말씀에 점점 과격해지고 있는 부부입니다. 저희는 3년째 남편의 직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9월에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인천 상륙작전”을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인지, 무슨 말씀이신지 알 수 없이 막연히 9월 28일이면 직장을 주시려나 했었는데, 좋은 소식없이 2012년 3월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사님께서 인천 상륙작전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낙동강까지 밀려나서 간신히 영적 체면을 지키던 행위와 말씀이 따로이던 저희 집안의 믿을 상태에 radical한 말씀과 진정한 회개와 깨달음을 주심으로 이 고난의 승리를 잡게 하셨습니다. 이제 욕기의 고백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합니다. 좋은 말씀을 주신 목사님 그 말씀 앞에 저희를 발가벗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김은주 올림

목사님!

저는 성당에 다니는 태미숙이라고 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깨우침과 은혜를 받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오늘 하루도 목사님의 욕기 말씀을 듣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힘들게 시작하신 목사님의 하루하루가 저의 하루하루를 너무도 은혜롭게 채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는데, 목사님을 따르고 싶네요^^

한 마리 지령이 황혜성 올림

목사님!

이번 특새를 들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대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조금 더 깨닫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림 올림

목사님!

40일 특새를 들으면서 깨달음이 참 많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고난의 시간을 즐거이 가기로 했습니다. 모든 말씀 나누시는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영경 올림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의 환경이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라고 할 때 언젠가는 빛으로 걸어가 수 있게 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홍경미 올림